

세계일보

2018년 4월 10일 화요일 012면 종합

## 자전거 타고 'DMZ' 누빈다

〈비무장지대〉

경기, 29일 일반인 투어 개최  
민통선 내 17.2km 구간 달려  
후반기 행사는 10월에 열어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mailto:sdk@segye.com)

경기도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 'DMZ 자전거투어'를 29일 개최한다.

DMZ 자전거투어는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DMZ(비무장지대) 일원을 자전거로 달리며, DMZ의 역사·생태적 의미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임진각 평화누리 자전거 대여소'가 개장한 것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DMZ 사진전, 엽서쓰기 등 이벤트를 함께 진행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코스는 민통선 내 임진강변 군 순찰로와 통일대교, 초평도 인근으로 DMZ 일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함은 물론,

안보 현장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게 운영된다. 총 길이는 17.2km(초급 13km)로 1시간30분 정도 소요된다.

행사 참가 방법은 경기관광포털([www.ggtour.or.kr](http://www.ggtour.or.kr))을 통해 2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개인 자전거가 없을 경우에는 3000원의 대여료를 내면 현장에서 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

박신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DMZ 자전거투어는 남북분단으로 인해 보존된 DMZ 일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자전거를 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며 "다양한 DMZ 행사와 연계해 경기도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DMZ 자전거투어는 이번 행사를 포함해 전·후반기 1회씩 진행되며, 하반기 행사는 오는 10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DMZ 관광사업팀(031-956-8306~7)으로 문의하면 된다.

# 아시아투데이

2018년 4월 10일 화요일 028면 수도권/전국

## “자전거 타고 DMZ 달린다”

### 경기관광공, 청소년탐험대 모집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다음 달 2일까지 1차 ‘2018 DMZ 청소년탐험대’ 참가자를 모집한다. 청소년탐험대는 전국 중·고등학생 및 같은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DMZ 일원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역사와 생태학적 가치를 체험하게 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는 ‘청춘, 평화와 벗하다’라는 주제로 당일 프로그램 2회(5월 12일, 10월 13일), 1박2일 프로그램 2회(7월 26~27일, 8월 9~10일) 등 모두 4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행사는 다음 달 12일 파주 임진각 평화의 종각을 출발해 민간인 통제구역 9.4km를 자전거로 달리게 된다. 임진강을 따라 달리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땅 초평도를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다. 또 철조망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미군 반환기지인 캠프그리브스를 방문하며,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등을 둘러보는 코스다. 해단식은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진행된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수료메달이 제공되며 우수활동을 펼친 참가자 및 지도자에게는 표창이 수여된다. 대학생 지도자의 경우 봉사활동 8시간이 인정된다. 참가신청 및 자세한 행사 내용은 경기도 DMZ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김주홍 기자

# 경기신문

2018년 4월 10일 화요일 002면 종합

## DMZ 청소년탐험대 참가 모집

### 경기관광공, 1차 다음달 2일까지

경기관광공사는 다음달 2일까지 1차 ‘2018 DMZ 청소년탐험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DMZ 청소년탐험대는 전국의 중·고등학생 및 같은 연령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DMZ 일원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역사와 생태학적 가치를 체험하는 행사다.

올해는 ‘청춘, 평화와 벗하다’라는 주제로 당일 프로그램 2회(5월 12일·10월 13일), 1박2일 프로그램 2회(7월 26~27일, 8월 9~10일)로 총 4회 진행할 예정이다.

첫 행사는 다음달 12일 파주 일원에서 열린다. 문의: ☎070-7791-2758

/김장선기자 kjs76@



# 경인일보

2018년 4월 10일 화요일 016면 문화

경기도-관광공사 DMZ 청소년탐험대 모집

내달 12일 파주서 도라전망대 등 안보체험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다음달 2일까지 1차 '2018 DMZ 청소년탐험대' 참가자를 모집한다.

DMZ 청소년탐험대는 전국의 중·고등학생 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DMZ(비무장지대) 일원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역사와 생태학적 가치를 체험한다.

올해는 '청춘, 평화와 벗하다'를 주제로 당일 프로그램 2회, 1박 2일 프로그램 2회로 총 4회 진행한다.

첫 행사는 다음 달 12일 파주 임진각 평화의 종 각부터 9.4km의 민간인 통제구역을 자전거로 달린다. 임진강을 따라 달리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의 땅 초평도를 망원경으로 관람한다.

이어 미군 반환기지인 캠프그리브스를 방문하고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을 둘러보는 안보관광을 실시하며 해단식은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열린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수료메달을 제공하고 우수 활동을 펼친 일부 참가자와 지도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한다. 대학생 지도자는 봉사활동 8시간이 인정된다.

참가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DMZ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070-7791-2758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

## 임진강변 17.2km... 29일 'DMZ자전거투어'

### 평화누리 자전거대여소 개장 기념 경기관광포털 20일까지 참여 접수

경기도는 임진각 평화누리 자전거 대여소 개장 기념 '비무장지대(DMZ) 자전거투어'를 오는 29일 개최한다.

DMZ 자전거투어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DMZ 일원을 자전거로 달리며 DMZ의 역사·생태적 의미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다.

행사는 지난달부터 '임진각 평화누리 자전거 대여소'가 개장한 것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DMZ 사진전, 엽서쓰기 등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코스는 민통선 내 임진강변 군 순찰로와 통일대교, 초평도 인근으로 DMZ 일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함은 물론 안보 현장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게 운영된다.

총 길이는 17.2km(초급 13km)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행사 참가 방법은 경기관광포털을 통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되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개인 자전거가 없을 경우에는 3000원의 대여료를 지불하면 현장에서 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

박신환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DMZ 자전거투어는 남북분단으로 인해 보존된 DMZ 일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며 자전거를 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며 "다양한 DMZ 행사와 연계해 경기도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DMZ 자전거투어는 이번 행사를 포함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되며, 하반기 행사는 10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경기=최종복 기자 bok7000@